

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3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 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756천 km ²	G D P	2,410억 달러 (2015년)
인구	18.0백만 명 (2015년)	1인당 GDP	13,426 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Peso (Ps)
대외정책	실리주의	환율(달러당)	654.07 (2015년)

-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, 페루, 볼리비아, 아르헨티나와 인접하고 있음. 남태평양 연안에 위치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편임.
- 구리(세계 1위), 리튬(1위), 요오드(2위), 몰리브덴(3위)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함. 특히 구리의 경우 세계 매장량의 1/3을 보유하고 있으며, 구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GDP의 약 10%, 총수출의 50%로 높음.
- 정부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, 2014년 기준 브라질,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임.
-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두번째 OECD 회원국으로, 2012년 멕시코, 콜롬비아,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을 결성하여 중남미 신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제성장률	5.5	4.2	1.9	2.0	2.1
재정수지 / GDP	0.6	-0.6	-1.6	-2.2	-2.9
소비자물가상승률	3.0	1.8	4.4	4.4	3.7

자료: IMF, EIU.

□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및 투자 부진으로 저조한 경제성장세 지속

- 칠레 경제는 GDP의 10%, 수출의 50% 및 FDI의 35%를 차지하는 광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성장률이 구리 등 광물의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임.
- 2010~13년에는 높은 원자재 가격 및 안정적 정치·경제환경에 따른 민간 투자 확대 등으로 연평균 5.3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, 2014년 이후 구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및 투자 감소, 정부의 조세·노동 개혁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악화 등으로 성장률이 2% 수준으로 둔화됨.

□ 2013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 이후 적자 폭 확대 추세

- 칠레 정부는 실질 재정수입 대신 잠재성장률과 장기적 구리 가격 전망치에 따른 구조적 재정수입에 기반한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흑자준칙(structural fiscal surplus rule)을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칠레는 원자재 가격과 경기에 연동되지 않는 중립적 정부지출을 집행하고 있으며, 호황기의 구리 수출 관련 초과 수입(收入)을 경제사회 안정펀드* 적립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있음.

* Economic and social stabilization fund: 2015년 말 기준 자산규모 139억 달러

- 2011~12년에는 높은 구리 가격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2013년에는 대선을 앞둔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

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, 2014~15년에는 구리 수출 축소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됨.

※ 구리 가격 추이(LME 3개월물 기준, 연평균, USD): ('11) 8,826 → ('12) 7,953 → ('13) 7,349 → ('14) 6,830 → ('15) 5,493

□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, 환율 상승 등으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록

- 칠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(Inflation Targeting) 하에 관리목표 물가 수준을 3%(±1%p)로 설정하고 있으며, 2009~13년 간 관리목표 범위 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함.
- 2014년에는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,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.4%까지 상승하였고, 2015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, 가파른 페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를 기록함.
-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0월 칠레 중앙은행은 2014년 10월 이후 3%로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3.25%로 인상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구리에 대한 수출편중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

- 광물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53%, 구리 비중이 49%를 차지하는 등 수출 편중도가 높아 구리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국가 총수출이 연동되고, 구리가격의 등락과 칠레 경제성장률의 추세가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임.
- 다만, 칠레 정부는 호황기의 구리 수출 관련 초과 수입(收入)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중립적 정부지출과 동 자금의 경제사회안정펀드* 적립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있으며, 2012년 이후 지속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부채무**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.

* 2015년 말 기준 139억 달러로 단기외채(153억 달러)의 0.9배, 외환보유액(384억 달러)의 0.4배 수준

** 2015년 기준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: 17.5%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구리, 아연, 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

- 구리(세계 1위), 리튬(1위), 요오드(2위), 몰리브덴(3위)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동 자원들이 지표면 가까이에 매장되어 있어 채산성도 갖추고 있음.
- 특히, 구리 매장량의 경우 2015년 기준 2.1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29.2%를 점유하고 있으며, 생산량도 5.7백만 톤으로 세계 1위(30.5%) 규모임.

□ 지형학적 이점으로 교역, 농작물 재배 등이 유리

- 남북으로 4,000km를 넘는 해안선이 태평양에 접해 있어 중남미 무역허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형학적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, 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항구는 아시아 진출에도 용이함.
- 칠레의 국토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, 북쪽은 아열대, 남쪽은 한대 지방으로, 폭넓은 기후대의 영향으로 농업과 산림분포가 매우 다양함.
- 소맥, 보리, 옥수수, 감자 등의 곡류 뿐 아니라, 포도, 사과, 아보카도, 자두, 복숭아, 배 등 다양한 과일이 재배되는 다종의 농산물 재배가 1년 내내 가능함.

다. 정책성과

□ 매력적 기업환경 제공을 위해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정책 견지

- 칠레는 1973년 피노체트 집권 이후 개방과 경쟁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음.
-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탈피하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간 주도의 성장정책 및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, 내외국인 투자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제도의 지속 등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, 물가 안정, 외국인투자 확대, 고정자본 형성 증대 등을 지속해옴.
- 이러한 칠레 경제의 경쟁력은 국제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Moody's, Fitch 및 S&P는 칠레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Aa3, A+, AA- 등급으로 부여하고 있음.

- 2016년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 보고서, 2015-16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칠레는 각각 48/189위, 35/140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^e	2016 ^f
경 상 수 지	-9,375	-10,311	-3,316	-4,761	-5,184
경 상 수 지 / G D P	-3.5	-3.7	-1.3	-2.0	-2.4
상 품 수 지	2,333	1,708	6,344	3,494	1,347
수 출	77,791	76,386	74,924	62,232	55,831
수 입	75,458	74,678	68,580	58,738	54,484
외 환 보 유 액	39,733	39,296	38,869	38,383	36,086
총 외 채 잔 액	120,546	132,632	145,666	147,900	-
총 외 채 잔 액 / G D P	45.5	47.9	56.5	61.4	-
D . S . R .	18.9	22.8	24.3	32.2	34.8

자료: IMF, EIU, 칠레중앙은행.

□ 구리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구리 수출액 감소 등으로 상품수출 감소

- 칠레는 구리, 철, 금 등 원자재와 연어, 과일, 와인 등 식료품을 주로 수출하고 중간재, 자본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,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5년 기준 총수출의 48.6%를 차지하는 구리가 단일품목 기준 최대 수출품이며, 광업 부문의 수출이 총수출의 52.5%를 차지함.
- 구리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구리 수출액 감소로 2013년 이후 수출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, 2015년에는 구리 수출 감소와 더불어 녹조 현상에 따른 연어, 송어 수출 위축 등에 따라 수출액이 전년대비 17% 감소함.
- 2015년 수출 감소액은 127억 달러이며, 이는 광업 수출 감소분 78억 달러, 어류 수출 감소분 10억 달러, 산화몰리브덴 등 화학제품 수출 감소분 10억 달러, 동선(copper wire) 등 기초 금속품 감소분 5억 달러 등으로 구성됨.

□ 수출액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축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

- 상품수지,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에 따른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(2011~15년 연평균 100억 달러) 발생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- 2015년 소득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27억 달러 축소된 60억 달러로 추정되나, 경상수지 흑자액 감소(29억 달러)와 경상이전수지 흑자 축소(2억 달러)로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됨.

□ 총수출액 감소 등에 따라 총수출액 대비 외채잔액 비중 대폭 증가

- 비금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로 총외채잔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전년대비 5%p 가량 증가하였고, 총수출 대비 외채잔액 비중은 급격한 수출 감소세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4%p 증가함.
- 2015년 외채원리금상환액은 전년대비 5.8% 증가하였으나,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외채상환비율(D.S.R.)은 전년대비 8%p 가량 확대됨.
- 반면, 정부채무는 2015년 기준 GDP의 17.5%로 낮은 수준이며, 외환보유액 규모는 384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4개월분 이상의 적정한 외환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음.

III. 정치·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3년 바첼레트 대통령 당선 이후 각종 개혁법안 추진

- 2013년 11월 중도좌파연합의 미셸 바첼레트(Michelle Bachelet) 전 대통령(2006~10년)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, 동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인 정치적 기틀이 마련됨.
- 바첼레트 대통령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조세, 노동,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나, 대통령 아들을 둘러싼 부정부패 스캔들 등에 따른 정치적 입지 약화가 개혁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.

- 법인세 인상, 납세제외기금 폐지, 부동산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축소, 개인 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2014년 9월 의회를 통과하여 10월에 발효되었고, 2016년 2월 세제간소화 법안이 발효됨.
- 반면, 노동개혁의 경우 2015년초 노동부가 노동자 권익 증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, 산업계 등의 반발로 동 법안은 의회에서 표류 중임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경제성장에 힘입어 빈곤율 등 사회개발지표 개선

- 피노체트 군사정권 출범 이후 시장경제 정책 도입에 힘입은 높은 경제 성장으로 1990년 38.6%에 달했던 빈곤율이 2013년 14.4%까지 하락하였고, 1인당 GNI가 2,260달러에서 15,270달러로 상승함에 따라 사회 안정도가 개선됨.
- 중남미 인근국인 콜롬비아, 페루의 빈곤율은 각각 30.6%, 22.7%에 달함.
- 높은 교육비, 공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으로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요소가 존재하나, 정부는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

3. 국제관계

□ 중남미 지역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한편, 볼리비아와의 영토분쟁은 지속

- 칠레는 태평양 동맹(Pacific Alliance)* 창설국인 동시에 남미공동시장(Mercosur)** 준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중남미 양대 경제블록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지역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* 칠레, 콜롬비아, 멕시코, 페루로 구성

**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, 베네수엘라, 브라질, 우루과이로 구성

- 한편, 볼리비아와는 태평양 전쟁(1879~84년) 당시 획득한 태평양 연안지역 영토와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.
- 페루와도 태평양 연안지역과 관련하여 영토분쟁이 있었으나, 2014년 1월 국제사법재판소(ICJ) 판결 이후 해상경계가 확정되면서 마무리됨.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국교수립 : 1962년 4월 18일 (북한과는 1972년 수교, 1973년 단교, 1992년 재개)

주요협정(발효일)

- 무역협정(1978), 사증면제협정(1980), 항공협정(1980), 경제기술협력협정(1983), 문화협정(1984), 투자증진및보호협정(1999), 이중과세방지협약(2003), 자유무역협정(2004), 원자력평화이용협력협정(2006),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(2008)

해외직접투자(2015년말 누계, 총투자 기준) : 71건, 400,948천 달러

교역규모

<표 4> 한 · 칠레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주요품목
수 출	2,458	2,083	1,742	자동차, 합성수지, 자동차부품
수 입	4,658	4,810	4,402	동제품, 동광, 기타금속광물
교역규모	7,116	6,893	6,144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V. 종합의견

구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및 투자 감소, 정부의 조세·노동 개혁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2% 수준으로 둔화됨.

총수출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광업 부문의 부진으로 총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, 유가하락, 국내 수입수요 감소 등이 수출 감소액을 일부 상쇄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%대를 유지하고 있음.

2013년 당선된 바첼레트 대통령은 여당의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, 부정부패 스캔들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 및 정치적 입지 약화가 정책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.

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확대추세이고, 총수출액 대비 외채 비중은 큰

폭으로 확대되었으나,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건전한 외채구조, 적정 외환 보유액 규모,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력 등 감안시 외채상환불능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게 평가됨.

조사역 조현수(☎02-6255-5712)
E-mail: hsc@koreaexim.go.kr